슈퍼 엘리뇨 예고…여름철 집중호우 대응 나선다

농어촌공사, 재난안전상황실 가동…호우 특보 발효 비상대응체계 구축
재난위험 취약시설 등 사전 점검…1056개 저수지 저수율 75% 이하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배수장 즉시 가동 여부와 긴급상황 대비상태, 배수장 전기 안점점검을 하고 있다.

올 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시설물 점검에 나서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 주재로 9개 본부, 4개 사업단, 전국 93개 지사가 참여하는 '여름철 우기 대비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지역 내 수방자재 및 인력 배치현황, 호우 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지역 현안과 실정에 맞는 시설물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역시 슈퍼 엘리뇨 발생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전남본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위기징후 감시체계 가동을 위해 기상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난 5월 초 재해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 취약 시설에 대해선 사전 점검과 공사 시공 중인 현장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현재 전남본부는 관리 저수지(1056개소), 배수장(149개소), 방조제(77개소) 등 1282개소 수리시설과 공사 현장 110개소, 급경사지 현장 96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완료한 뒤 고 중점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인 가뭄 대응 체계를 운영해 차질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경험을 살려,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신속히 장마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등 예측되는 상황별에 따라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게 특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황별로 관내 저수지 1056개소에 대해서는 홍수 기간이나 집중호우 예보 시 저수율을 75% 이하로 관리토록 설정했다. 또 유역 배율이 높거나 하류부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 31개소에 대해서는 이동식 사이펀 등 간이 방류시설을 오는 30일까지 설치해 우기에 대비할 방침이다.

배수장의 경우 가동 인원을 사전 배치하는 한편, 낙뢰 등의 전원 차단으로 가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엔진 양수기 동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배수갑문은 갑자기 불어나는 유입 수량을 대비하기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고 수문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사전 수위 조절 등의 대비 훈련 등으로 조작 숙련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수초나 부유물로 인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용·배수로 내 점검을 우기철이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시공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실이나 무너짐, 현장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침수 대비 장비 보유 여부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 홍수 기간 이전 재해위험 공정을 최대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남본부는 복구용 방수 천막 등 재난관리자원을 추가로 구비하고 재난지역이 발생 시 자원 공유를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올 초 극심한 봄 가뭄을 예측하고 일찍부터 준비해 큰 걱정 없이 모내기를 마쳤다"면서 "여름 국지성 호우 예보 역시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대비에 나서는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PS, 안전 일터 구현·중대재해 'Zero' 달성 결의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전KPS는 13일 본사에서 '2023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안전경영위원회에는 허상국 부사장을 비롯,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남규 교수 등 전문가 위원과 한전KPS 및 협력회사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이행 역량 강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위험성평가 교육 및 홍보 등 안건 의결과 안전다짐 서약, 외부 강사 안전보건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전KPS 관계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안전·보건관리활동을 더욱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경영위원회는 한전KPS와 협력회사의 안전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안전보건 관련 자문 회의로,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디지털 성범죄 예방…한전KDN, 나주 학교 다중시설 불법촬영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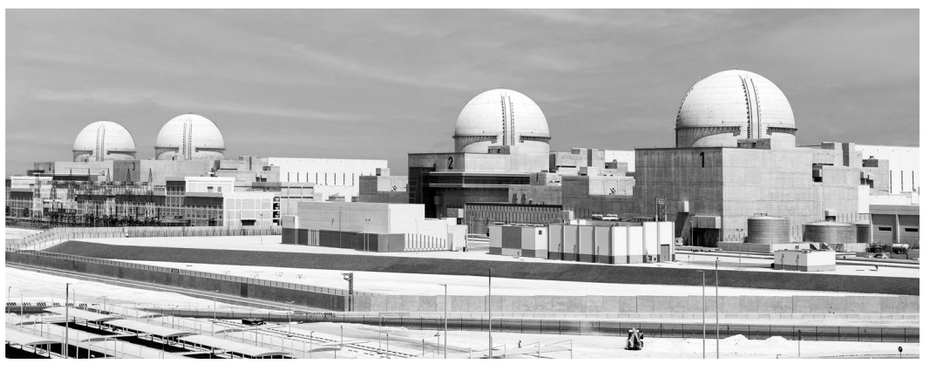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최근 나주시 관내 학교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점검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KDN의 관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합동점검은 지난 4월 나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실천 활동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될 불법촬영 불시 점검은 나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나주 관내 10여개 초·중·고교가 대상이다. 점검을 위한 사전교육을 통해 탐지장치 사용법, 현장점검 절차 등을 익히고 최신 탐지장비(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조별2식)를 사용해 육안 식별이 어려운 물체와 흔적까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전KDN은 불시 점검을 위해 3인 1조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현장 점검과정에서 불법 카메라 발견 시 현장 사진 및 증거품 보존과 함께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서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UAE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경.

한전, UAE 원전 4호기 가동준비 착수

UAE 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UAE원전 최종호기인 4호기의 건설역무단계를 완료하고 운영준비단계에 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원자로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및 2022년 7월 고온기능시험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최근 시운전을 위한 시험을 마치고 건설역무단계를 완료해 UAE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위한 운영준비단계에 진입하게 됐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UAE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3개 호기가 1년 미만의 간격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UAE에 공급되는 청정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동시 생산하고 있다.

약 1년 간격으로 4개 호기의 동시건설을 진행하며 선행호기에서 축적된 경험사례들이 후속호기에 반영돼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MW급 APR 1400 노형으로, 1~3호기는 현재 UAE 내 4200MW의 청정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저감 정책'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UAE원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되며, 아랍지역 최대의 청정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